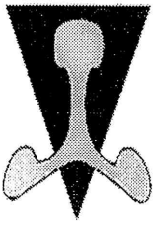




1983년 재창단...상위권 노려



부산공고

우, 김봉주, 권순호, 정재일, 권재경, 한성현, 백태준, 황대웅.

창단 81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공고는 제 19회 청룡기 우승 이후 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3년 재창단 됐다. 재창단 후 2001년 황금사자기 3위에 입상했다. 올해엔 좌완 에이스 박용운(3학년)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표=이태종 ▲감독=박경수 ▲선수=정현호, 박용운, 김준석, 김원석, 채기호, 정하늘, 권영민, 양지원, 김준형, 이병우, 김봉주, 권순호, 정재일, 권재경, 한성현, 백태준, 황대웅.

박상훈·김상훈 마운드 사수



원주고

원, 정지민, 이현욱, 김성환, 우원일, 정재우, 손기현.

1981년 5월 창단한 원주고는 전국대회 우승을 단 한차례도 하지 못했지만 열정만큼은 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주목할 선수로는 에이스 박상훈, 김상훈이, 타선에선 박지용, 김성환 등이 포진해 있다. ▲대표=이병수 ▲감독=안병원 ▲선수=김영삼, 박상훈, 박지용, 김상훈, 임관훈, 이석재, 박재운, 우병길, 박수찬, 정병현, 김영광, 이남현, 김우민, 김대환, 김재균, 윤재석, 정지민, 이현욱, 김성환, 우원일, 정재우, 손기현.

김동빈·강봉규 '불꽃 타선'



구미전자공고

웅, 남성렬, 이지환, 강정호, 김민근, 박혜인, 홍준표, 오주환.

창단 5년째인 구미 전자공고는 지난해 무등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업을 연출했다. 언드핸드 홍효의와 좌완 박재희, 우안 서정민 등이 포진한 마운드가 특특하다. 또 김동빈, 강봉규, 박재희, 장웅, 이휘웅 등 중심타선의 폭발력도 돋보인다. ▲대표=박성권 ▲감독=권경화 ▲선수=임승규, 김도산, 박재희, 박준범, 홍효의, 이휘웅, 이국, 김봉규, 김동빈, 서성민, 장웅, 남성렬, 이지환, 강정호, 김민근, 박혜인, 홍준표, 오주환.

박찬호 출신교...전통의 강호



공주고

세진, 조성현, 김찬호, 김기선, 한수민, 안태원, 강만수, 최재호, 우진욱.

1924년 창단된 공주고는 1977년 제 11회 대통령배 우승, 1990년 전국체육대회 우승 등의 성적을 낸 전통 강호다. 지역에선에서 5할타를 뽐낸 주장 이남욱이 눈에 띈다. ▲대표=이진주 ▲감독=이중호 ▲선수=이남욱, 조순식, 이상열, 한상혁, 고봉찬, 장성민, 조득주, 안승민, 김철민, 양정훈, 장익호, 황진수, 김기영, 이영준, 전호원, 이종원, 류환선, 김철중, 이창호, 박철우, 양정환, 고세진, 조성현, 김찬호, 김기선, 한수민, 안태원, 강만수, 최재호, 우진욱.

장성열 1점대 방어율 돋보여



인창고

연승규, 유지훈, 김범준, 김기덕, 광상호, 박현우, 김우민, 조정공.

창단 1년만에 제 31회 봉황기 준우승 등의 성적을 내며 신승 야구명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에선에서 1점대 방어율을 선보인 장성열과 김태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이승상 ▲감독=이상훈 ▲선수=이종현, 허완, 손진원, 김태규, 서상화, 신예성, 김태훈, 장성열, 류준영, 김영석, 김영문, 성시성, 최기호, 오재범, 김재성, 한규현, 최건, 이부기, 박규원, 박지용, 민병권, 이은영, 연승규, 유지훈, 김범준, 김기덕, 광상호, 박현우, 김우민, 조정공.

기동력 갖춘 공격야구 과시



유신고

윤, 윤진, 임대현, 정수빈, 김준용, 김학성, 박혁, 배승현, 이지훈, 최성일.

1984년에 야구부를 창단한 유신고는 제 42회 황금사자기 준우승(1988년), 제 70회 전국체전 우승(1989년), 제 35회 봉황기 우승(2005년) 등을 통해 수반 고교야구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신승 야구 명문이다. 기동력을 갖춘 공격 야구가 감점이다. ▲대표=전두안 ▲감독=이상열 ▲선수=장철희, 김주, 원범식, 서상우, 이지민, 권남진, 이진욱, 박범열, 김기수, 서인경, 송준혁, 신정윤, 윤진, 임대현, 정수빈, 김준용, 김학성, 박혁, 배승현, 이지훈, 최성일.

윤명준 투수 최고 구속 143km



동성고

경국, 박선용, 문동욱, 심규일, 채수웅, 문진제, 고영표, 윤지훈, 오민재.

1956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10회 우승과 8차례의 준우승을 이끌어낸 광주 야구의 대표 명문고다. 143km대의 지구와 변화구의 제구력이 일품인 윤명준이 득점하다. ▲대표=심진섭 ▲감독=윤여국 ▲선수=오정운, 윤명준, 이광민, 이유승, 장경훈, 서경수, 윤도경, 노진혁, 이상원, 조우상, 최재영, 임이현, 문선재, 고영우, 김찬양, 신희섭, 송단비, 윤효섭, 최승원, 배진선, 윤병문, 유경국, 박선용, 문동욱, 심규일, 채수웅, 문진제, 고영표, 윤지훈, 오민재.



제14회 무등기 고교야구 출전 24개팀 프로필

광주일보사가 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해 1994년 창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오는 11~18일까지 8일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무등기 대회는 매년 셋벌 같은 선수들을 배출, 국내외에 한국 야구의 지력을 알리는 선봉장이 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해 온 '광주일고 3인방' 김병현, 서재용, 최희섭 등은 무등기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로 꼽힌다. 이번 대회도 한국 야구사에 남을 명승부와 함께 셋벌들이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등기 최정상을 넘보는 전국 24개 참가팀의 프로필과 팀 전력을 살펴본다.

전국대회 20회 우승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

민국, 정승인, 김주덕, 이주호, 조성진, 한희준, 김태형, 최웅진, 김백산.

지난 1923년 창단한 광주제일고는 한국 최고 야구 명문이다. 전국 대회에서 20차례나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무등기에서는 원년 우승 등 4차례에 걸쳐 최정상에 올랐다. ▲대표=한종관 ▲감독=허세환 ▲선수=이철우, 정찬현, 김경열, 김호빈, 송성신, 장민재, 윤민섭, 정성철, 양영웅, 박국남, 박기철, 박세도, 김인성, 윤여운, 손병기, 박준호, 조영선, 서건창, 최형석, 손준혁, 허경민, 강민국, 정승인, 김주덕, 이주호, 조성진, 한희준, 김태형, 최웅진, 김백산.

김수완 대통령배서 '노히트노런'



제주관광산업고

박세원, 이신호, 김용빈, 김진국, 함민성, 장민수, 이준희, 정진수, 이재성.

1910년 개교한 제주관광산업고는 제주농업고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눈에 띄는 성적은 없지만, 올해 대통령배 대회에서 고교야구 15년 만에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김수완의 어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노승현과 김성현 등 나머지 투수진도 안정적이다. ▲대표=박경조 ▲감독=성낙수 ▲선수=박동찬, 노승현, 한상일, 김태정, 윤태희, 김수완, 김성빈, 박재현, 박상진, 김성현, 송준영, 정현우, 김상우, 조영민, 우경삼, 강현우, 구성모, 황진명, 김진형, 김진욱, 채상원, 송민섭, 맹준혁, 이광민, 김병진, 안규성.

전력 재정비 "옛 명성 되찾겠다"



중앙고

철, 김희빈, 신철규, 심대선, 최운진, 산호성, 백규성.

60년대 전국체전 3회 우승, 70년대 전국대회 2회 우승한 명문 야구팀. 80~90년대 약체팀으로 전락했으나 전력을 재정비해 올 대통령배에선 4강에 들었다. ▲대표=윤시탁 ▲감독=고형욱 ▲선수=김민, 김선우, 김현승, 노진용, 민성기, 박재바로, 최의영, 허목, 남현우, 김대호, 전준홍, 조흥준, 이수민, 김용민, 김용국, 정강호, 신석기, 홍지운, 하지항, 성요한, 김용국, 조흥석, 김영철, 김희빈, 신철규, 심대선, 최운진, 산호성, 백규성.

홍상삼 등 마운드 3학년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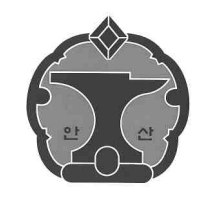


충암고

김우재, 박민기, 이상원, 류선태, 최현규, 주태규, 오윤성, 구항.

전국대회에서 5회 우승한 서울 야구 명문. 2006년 미추홀기 우승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홍상삼 등 3학년으로 구성된 마운드가 감점이다. ▲대표=김창욱 ▲감독=이영복 ▲선수=양성우, 홍상삼, 박준준, 최호성, 최경환, 정용운, 이효상, 김기남, 이상윤, 홍승표, 김동영, 김도환, 안승환, 이정훈, 마낙길, 정우남, 정근필, 이학주, 김진영, 문성현, 문찬준, 최규상, 김우재, 박민기, 이상원, 류선태, 최현규, 주태규, 오윤성, 구항.

안산시 9억 들여 전용구장 설립



안산공업고

진, 김재상, 양희현, 강한울, 원성식, 유영근, 남택원, 노태성, 최인규.

2000년 창단된 안산공고는 4년만에 미추홀기 우승을 시작으로 2006 청룡기 4강 등 매년 꾸준히 성적을 내는 신승 강호다. 안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9억원을 들여 학교 전용 야구장을 설립했다. ▲대표=김소환 ▲감독=이은성 ▲선수=박찬도, 최현수, 이지섭, 이주열, 김준환, 권인규, 이한별, 이인주, 안성재, 이광재, 조재민, 최창조, 서대우, 이민우, 권오민, 김성재, 전우진, 김재상, 양희현, 강한울, 원성식, 유영근, 남택원, 노태성, 최인규.

2001년 봉황기 우승...4강 목표



청주기공

김현수, 방제민, 최의영, 백인성, 공민권, 조성철, 채우성, 노수광, 김인철.

청주기공공고는 지난 2001년 제31회 봉황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승 야구 명문고로 부상했다. 이후 2004년 제 19회 한화기 우승, 제85회 전국체전 준우승 등 다크호스다. 올해는 4강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표=김홍래 ▲감독=박해웅 ▲선수=김병찬, 이선우, 이강현, 김진수, 이준호, 정현철, 김병진, 신용진, 이지형, 김동걸, 박성주, 박민우, 장군, 윤준영, 김준용, 홍용표, 김기철, 김현수, 방제민, 최의영, 백인성, 공민권, 조성철, 채우성, 노수광, 김인철.

투수 강병완 앞세워 4강 노린다



선린인터넷고

진명, 김진형, 김진욱, 채상원, 송민섭, 맹준혁, 이광민, 김병진, 안규성.

전국대회 10회 우승의 전통을 자랑하는 선린인터넷고는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 강병완을 선두로 최소 4강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표=전광호 ▲감독=박순영 ▲선수=유정민, 강병완, 이재민, 박상원, 이혁기, 한국인, 김원재, 오현성, 박영민, 정우민, 정정환, 박성림, 김경화, 김용민, 한기용, 김정목, 김상우, 조영민, 우경삼, 강현우, 구성모, 황진명, 김진형, 김진욱, 채상원, 송민섭, 맹준혁, 이광민, 김병진, 안규성.

강원도 고교명문...제2 중흥기 다짐



충천고

김선민, 조규연, 김남균, 이재근, 김대권, 지영환, 조진욱.

강원도 명문 충천고는 지난 99년 제 54회 청룡기 준우승을 시작으로 2005년 대통령기 8강, 청룡기 8강, 대동기 8강 등의 성적을 내며 제 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주장 전한울을 중심으로 김여명, 최현용, 임근중 등 3학년이 포진한 마운드의 근성이 돋보이는 팀이다. ▲대표=유창욱 ▲감독=최정기 ▲선수=전한울, 김여명, 최현용, 임근중, 김여국, 고형근, 김환, 김민수, 박훈규, 이현우, 김선민, 조규연, 김남균, 이재근, 김대권, 지영환, 조진욱.

무등기 3번 등 전국대회 6회 우승



진흥고

임기준, 최인호, 김정훈, 천승원, 권정주, 임병훈, 서우연, 이준용.

1973년 창단 후 전국대회 6회 우승을 차지한 야구 명문고다. 특히 무등기 2연패를 차지하고 지난해 13회 대회에서 무등기를 탈환하는 등 무등기와의 유독 인연이 깊다. ▲대표=이중호 ▲감독=최재형 ▲선수=홍석용, 임요한, 김혁, 강하승, 나성범, 조영복, 이상욱, 설재훈, 박상현, 정은표, 문준용, 강호영, 김덕준, 고영창, 김문태, 정영선, 유영준, 최천만, 원강산, 백이진, 문준성, 손경진, 임기준, 최인호, 김정훈, 천승원, 권정주, 임병훈, 서우연, 이준용.

옛 경남상고서 탈바꿈...8강 목표



부경고

호진, 박지환, 오창재, 이광진, 정현용, 최봉천, 최진영.

부경고(구 경남상고)는 지난 1975년 화랑대에서 전국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1990년대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전국대회 정상에 서며 야구 명문으로 자리를 굳혔다. 올 인문계로 탈바꿈 한 뒤 무등기 대회에서 최소 8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신두진 ▲감독=박경식 ▲선수=김진영, 김사현, 박태정, 권민호, 김준영, 박진관, 박진우, 이상호, 이주원, 최진성, 김호진, 박지환, 오창재, 이광진, 정현용, 최봉천, 최진영.

홍성원 지역예선서 5할타



제물포고

장원, 조정환, 허동민, 박용진, 유익표, 한상은, 김현규, 유영기.

인천 강호 제물포고는 지난 99년 화랑대기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뒤 매년 꾸준히 성적을 내는 팀이다. 지역 예선에서 5할타를 올렸던 홍성원이 주축이 된 타선이 감점이다. ▲대표=박종조 ▲감독=가래영 ▲선수=김희석, 김유관, 박시영, 김원태, 김해용, 류기훈, 홍우상, 김동수, 박건환, 방효국, 백승화, 오대선, 정우민, 최원일, 한상우, 남승현, 박영산, 안정광, 이민호, 홍성원, 황교석, 남태혁, 박장원, 조정환, 허동민, 박용진, 유익표, 한상은, 김현규, 유영기.

2003년 창단...8강 진출 목표



김해고

윤동훈, 김효일, 공경륜, 이상규.

지난 2003년 야구부를 구성한 김해고는 전국대회에서 별다른 무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팀원도 9명 뿐이다. 하지만 올해 새로 부임한 유두열 감독의 열정적인 지도와 동창회 및 지역 사회의 활발한 지원을 바탕으로 무등기 8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양상수 ▲감독=유두열 ▲선수=하해용, 이창민, 김행운, 조성훈, 김종철, 윤동훈, 김효일, 공경륜, 이상규.

전북 고교 대표 '역전의 명수'



군산상업고

화, 오성진, 황진형, 이상호, 최현욱, 신광민, 우태성, 고석찬.

군산상고는 전국대회 우승 16회 등을 통해 호남야구의 불꽃을 일으킨 팀이다. 특히 지난 72년 제 26회 황금사자기대회 결승에서 '역전의 명수'란 애칭도 얻었다. ▲대표=노동식 ▲감독=차동열 ▲선수=서성보, 김현철, 왕민수, 전태현, 한희, 백진영, 조보민, 이하늘, 김주혁, 김태형, 박준호, 장혁, 박희영, 최원철, 윤석재, 권순범, 박인욱, 전웅섭, 최형록, 김정봉, 김장군, 정성환, 신광화, 오성진, 황진형, 이상호, 최현욱, 신광민, 우태성, 고석찬.

1924년 창단한 옛 대구상고



대구상원고

라준성, 백준혁, 배정원, 조형준, 김민수, 황석호, 이재우, 김정수, 김대환.

대구상원고(구 대구상고)는 1924년 야구부를 창단한 전통 명문팀이다. 그동안 대통령배 우승 2회, 청룡기 우승 4회, 황금사자기 우승 2회 등 모두 17회의 전국대회 우승을 일궈냈다. ▲대표=이상호 ▲감독=오대식 ▲선수=김민석, 장경식, 이동훈, 정준재, 김세훈, 이상훈, 손만재, 이성형, 윤문용, 노윤동, 최지은, 우동근, 이승엽, 윤성민, 권민규, 김민찬, 정우민, 이호준, 임정민, 백승민, 박효일, 라준성, 백준혁, 배정원, 조형준, 김민수, 황석호, 이재우, 김정수, 김대환.

작년 대통령배·황금사자기 석권



장충고

정중, 김준원, 김경현, 강성진, 박준혁, 최선호, 강승훈, 김현용, 정성민.

장충고는 지난해 대통령배와 황금사자기 대회를 휩쓴 감점이다. 최고 구속 146km를 뿌려대는 고교 강구구 투수 최원재와 박민석 등 마운드가 막강하다. ▲대표=이창우 ▲감독=유영준 ▲선수=박민석, 최원재, 김준원, 김지현, 김재민, 유원태, 최재훈, 강우근, 안효진, 송재훈, 김승현, 백용환, 이흥구, 김경모, 김현우, 신동진, 김상호, 김진철, 김석용, 이형석, 최윤준, 서정중, 김준원, 김경현, 강성진, 박준혁, 최선호, 강승훈, 김현용, 정성민.

신장 203cm 좌완 장민의 '눈에 띄네'



순천효천고

박효석, 유병택, 임현용, 변만후, 이지훈, 안태훈. /박진기 기자 lucky@

순천 효천고 야구부는 전남 동부지역의 고교야구 진흥을 위해 지난 94년 창단됐다. 학교내에 실내와 야구연습장과 합숙소 등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 2m3cm의 장신 1학년 왼손 투수 장민의 눈이 띈다. ▲대표=오연준 ▲감독=서창기 ▲선수=공주현, 오호성, 민병호, 홍성혁, 김동조, 양부근, 이태양, 장민이, 이재욱, 최우성, 채은성, 진푸름, 주도성, 박성규, 홍승혁, 김항길, 박효석, 유병택, 임현용, 변만후, 이지훈, 안태훈. /박진기 기자 lucky@